

시험원 개원과 함께 노련한 운영미 발휘

직원관리를 통해 조직발전 승화

최광선/한국플라스틱시험원 이사

한국 플라스틱시험원은 지난 93년도 설립 검토에 들어가 지난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93년 시험원 개원에 즈음하여 플라스틱조합에 입사하여 그간 시험원 설립에서 운영에 이르는 전반적인 일을 도맡아 온 최광선 이사는 공기업 연구소에서 10년, 사기업 연구소에서 10년의 경력을 쌓고 8년간 제조업을 하다 시험원 개원과 함께 조합 운영에 동참했다. 30여년이라는 경력이 말해 주듯 그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원을 찾는 중소기업인이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저희 한국플라스틱시험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시험검사로 신뢰받는 공인시험기관으로써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기술연구조합,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의 공동 참여로 설립되었습니다. 시험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플라스틱 제품분야 시험설비를 조합원에게 개방하여 품질시험 및 개선, 제품개발, 기술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합원업체에게는 저렴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라며 시험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국내에는 정부기관 시험연구소도 있지만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가격도 비싸 중소기업이 지워야 할 부담이 컸으나 우리 시험원은 간단한 절차는 물론이고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질 좋은 제품을 만들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립동기를 덧붙였다.

시험원의 구성원은 과장 1명, 계장 2명, 검사원 2명, 접수직원 2명으로 모두 7명이며 지난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밀린 시험업무를 계속해야 했다고 밝히는 최 이사는 시험원을 개설하는데에 약 7억원이 소요되었고 다행히 한화중합화학이나 대한유화 등 대기업에서 분석기기를 증정해 주기도 하고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 어려움없이 진행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보너스를 모아 시험기기를 구입했다며 뿌듯해 했다.



▲ 최광선 한국플라스틱시험원 이사

또한 최 이사는 “지난 6월에는 국내에서 17번째로 조합중에서는 최초로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시험검사 공인기관(KORAS)이란 국가적 권위를 부여받은 인정기구가 시험 검사기관의 시험능력을 공인된 평가기준에 따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라며 개원한 지 얼마되지 않아 당분간은 운영상의 과도기를 거쳐야 하는 점도 감수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가 시험요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시험 후의 확인 작업이다. 시험에서 불합격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재검사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며 현재는 폭주하는 업무로 연구원들의 자기개발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 했다.

최 이사는 오랜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관리가 조직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재삼 강조하고 직원들과의 융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플라스틱시험원이 내년중 지방에 분원을 개설하여 지방 중소기업체들의 번거로움을 덜 것과 향후 표준화 평가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ko**

이선하 기자